

갑오징어 산란 · 서식장 조성 본격화

군산시, 시설물 조성 · 체계적 관리... 지원 지속가능성 확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자원 증대를 위하여 산란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조성, 자연식 시설, 종자 방류 및 효과조사 등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8억원이다.

갑오징어 산란기는 4~6월(15~20°C)로 수심 2~10m 이내의 연안에서 암석, 해초, 해저 구조물 등 부착기질에

알을 붙여 산란하는 습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산란할 알을 부착하고 은신처 제공 등을 위하여 산란 시설물(갑오징어 통발) 900개를 3개소(비안도 방죽도 연도)에 300개씩 설치하였다. 한편 비안도 어촌계는 인공 해조장(3m×3m) 10개소 설치를 통해 알 부착물의 비교분석 및 적절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산란율을 높이고 자연 증식을 유도하여 산란서식장 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조류의 자연 착생 유도 및 갑오징어 산란 및 성육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자연식 시설(약 2,220㎡)과 갑오징어 종자 방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산

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조성 외에도 산란장 주변의 수질 및 해양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어족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판매액 40억원 돌파를 위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탄탄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마을전자상거래, 고객층 확보 나서

익산시, 농산물 신선도 · 안전성 향상 위한 품질관리 체계 운영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판매액 40억원 돌파를 위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탄탄한 고객층 확보에 나섰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전자상거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품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철저한 품질관리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매출 증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통해 436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판매를 중단한다.

이어 입점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뉴얼은 재배에 필요한 농업 정보를 비롯해 선별, 포장, 고객 응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고령농·소농을 대상으로 선별·포장에 대한 맞춤형 현장 지도를 진행해 품질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의 유통 체계와 시민모터링단 운영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소량 농산물은 익산시가 직접 순회·수집·배송하고, 다량 농산물은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체계 고도화로 유통의 신속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배송하고 있다.

시민모터링단은 소비자나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품질, 포장, 배송 신속성, 고객 응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족한 부분은 농가 교육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돌봄필요 청 ·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돌봄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동행 △심리지원 △중장년 건강생활지원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상대적 돌봄 사각지대인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득제한 기준을 없애고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이혼 가족을 부양하는 13~39세 가족돌봄청년이다.

대상자는 재가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를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시내버스 파업 대비 대책 마련... 시민불편 최소화

익산시, 오늘 조정회의 결렬 시... 9개 주요노선 전세버스 12대 · 읍면 거점지 임차버스 40대 배치

익산시가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8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협상 결렬 시 29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9일부터 비상수송차량으로 시내순환 6개 노선에 전세버스 12대, 시내권·읍면 순환 3개 노선에 9대를 배치하고 읍면 거점지에는 임차버스 40대를 운행한다.

원활한 탑승을 위해 각 버스 차량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이용요금은 전세버스와 임차택시 모두 무료이다.

/익산=이재춘기자

비상수송차량의 노선 경로와 운행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만으로는 원활한 수송에 한계가 있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가용 함께 타기 등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내일 새만금 JOB going with Start-up 개최

군산시는 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2024 새만금 JOB going with start-up'을 개최한다.



올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행사 참여 독려를 위한 스타트업 규모 또한 확대하여 최신 창업 트렌드 정보 제공, 예비 창업자를 위한 법무, 세무 등 테마별 사업 노하우 집합 멘토링 등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걸쳐넷 시대의 채용키워드를 주제로 한 '2024 취업역량 강화 특강과 더불어 스타트업

특강 △이차전지 배터리 아카데미 인력양성 사업 설명회 △기업별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창업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도내 10개 대학 및 15개의 유관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참여기업은 18개 사로 늘려 참여기업과 구직자 사전매칭으로 1:1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 면접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취·창업 컨설팅과 워라밸존, 금융 세미나, K-POP 힐링 콘서트와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컨설팅 등 이미지 메이킹, 군산메이드마켓이 참여한 가족공예, 캐리어 굿즈 등의 체험행사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길거리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 양질의 전사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 JOB going with start-up 홈페이지(<https://www.seamangaumjobkr/>) 또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산시는 풍수해 재난 대비 실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법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산시는 작년 효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훈련은 매뉴얼 숙지 및 초동 대응 등 재난위험 대응 능력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능력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재난현장 간 실시간 연계훈련으로, 군산시 월명야구장 일대 재난현장이 실시간으로 군산시 청내 재난상황실에 중계되는 가운데 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등 실천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군산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하였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군산=이재춘기자